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 12

통권 33호

December 2007

## | 이달의 이슈 |

다양성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  
안 정 숙(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 경제포커스 |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  
장 통 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처장)

서울시 드라마 산업

고 정 민(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산업팀장)

## | 생생리포트 |

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 자치구탐방 |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 덕 수(종로구청 복지환경국장)

## | 경제동향 |

경기/고용/부동산/금융

## | 부록 |

통계표

# 서울경제

2007. 12

## 차 례

<b>이달의 이슈</b>	3	<b>다양성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b> 안정숙(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b>경제포커스</b>	11	<b>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b> 장동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처장)
	18	<b>서울시 드라마 산업</b> 고정민(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산업팀장)
<b>생생리포트</b>	33	<b>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b>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b>자치구탐방</b>	47	<b>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b> 여덕수(종로구청 복지환경국장)
<b>경제동향</b>	59	<b>요 약</b>
	60	<b>경 기</b>
	70	<b>고 용</b>
	78	<b>부동산</b>
	86	<b>금 융</b>
<b>부록</b>	99	<b>통계표</b>

## 다양성 영화에 대한 지원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



안정숙<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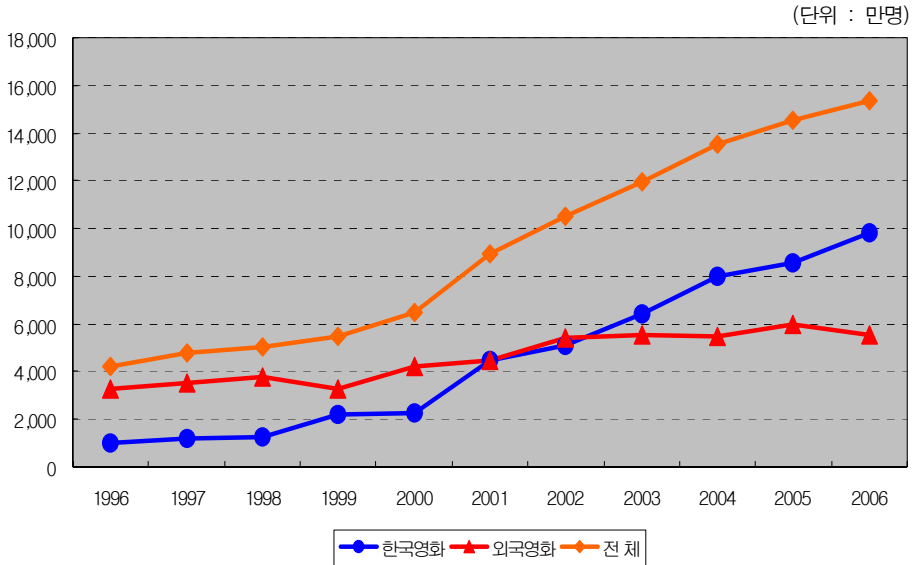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bulfi@kofi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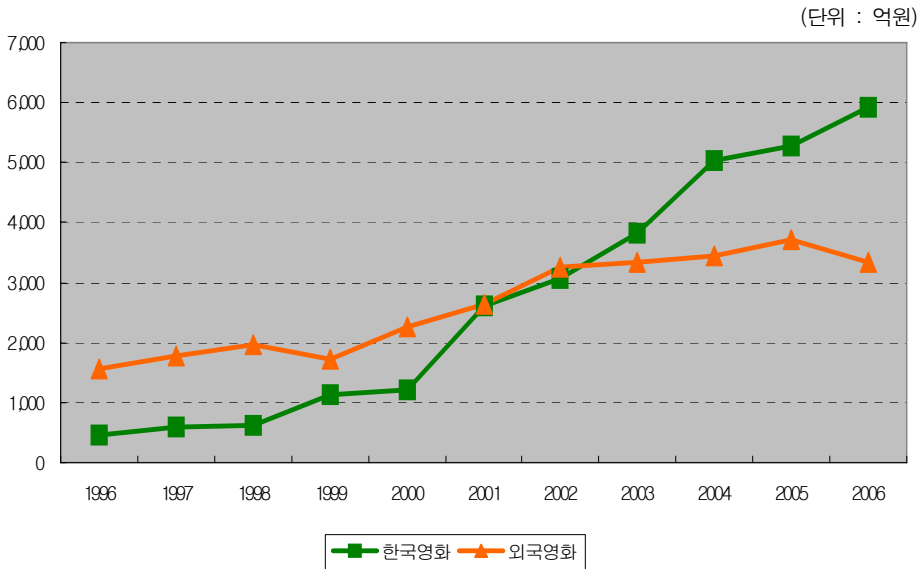
얼마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영화산업이 선진국형 저성장구조에 접어들어 향후 10년간 3.6%의 성장률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창조력 부재와 과도한 제작편수로 인한 질적 저하, 배급사들의 해외 대작 수입 선호 경향 등을 꼽았다. 영화계 외부의 한 기업 연구소가 영화계의 내적 동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상만을 놓고 미래 전망을 진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지만 주목할만한 점은 있다고 판단한다. 문화상품일 수도 있고 예술행위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산업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힘은 콘텐츠의 우수성이다. 콘텐츠의 우수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제작·유통과정의 시스템을 합리화하고 창의적 집단의 창작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 산업시스템에 편승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영화의 영역들, 즉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상업영화들과 공존하며 산업내에 창의성을 불어넣어주는 다양성영화<sup>1)</sup>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 독어교육과 졸업(학사), 서울예술전문대학 영화학과 졸업
- 한국일보사 서울경제신문 기자, 한겨레신문사 기자(씨네21 편집장 역임)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현)



<그림 1> 연도별 한국·외국영화 전국 관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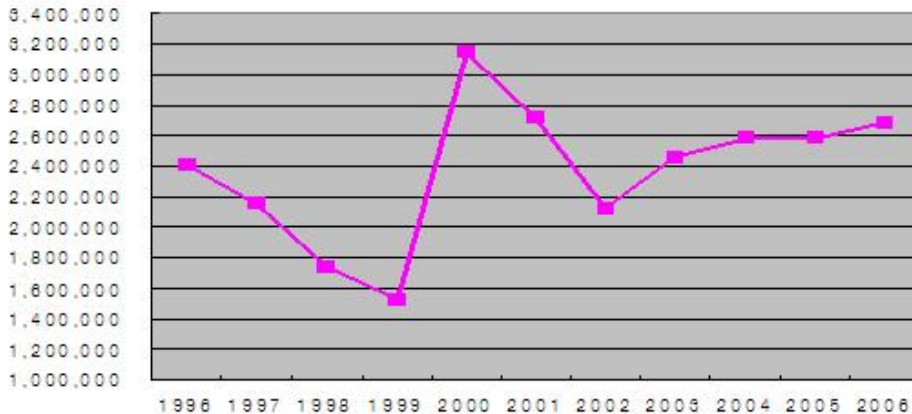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한국영화·외국영화 극장 매출 추이

- 1) 다양성영화란 수익 추구의 상업영화와 달리 예술성 및 작품성을 중요시하는 영화로서 예술영화, 독립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을 통칭한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작은 영화'는 제작·배급·상영규모에 따른 개념으로 규모의 경제만 강조돼 읽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책생산과 진흥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작은 영화라는 용어가 경제적 규모를 전제로 스스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 영화'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영화진흥위원회 넥스트플러스 시네마네트워크 사업계획 중 일부 발췌, 2007. 08)

위 그래프를 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영화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주류 상업영화에 의한 시장독점과 와이드릴리즈(wide-release) 개봉방식이 일반화되는데 따른 마케팅비용의 과도한 증가와 수익률 저하, 다양성영화를 둘러싼 제작·상영여건의 어려움 등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다양성영화를 둘러싼 주변 환경

1995년 동숭아트센터와 영화사 백두대간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을 표방하면서 예술영화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다양한 영화전문지들(키노, 씨네21, 프리미어)이 출간되었고 단편(독립)영화제들이 생겨나 영화계에서는 1997년까지를 예술영화전성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후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히 관객이 감소<sup>2)</sup>하면서 한국영화산업의 성장과는 궤도를 달리하게 된다. 이는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멀티플렉스를 개관하면서 상영·배급구조가 변화되어 독점적인 상업영화 몇 몇에 관객쏠림이 일어난 것과, 게임, 케이블채널 등 다양한 오락매체의 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2년부터 소폭이지만 다양성영화의 관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다양성영화 관객수 증가 추이

2) 2000년에 잠깐 관객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다양성영화 중에서도 ‘거짓말’, ‘아메리칸 뷰티’, ‘웰위덴스’ 같은 몇몇 특정영화가 3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물론 다양성영화가 전용관에서만 상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간 전체 다양성영화 증가폭이 개별 전용관의 급속한 관객증가보다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주목할 것은 다양성영화관객이 일정정도 존재하는 서울에 비해 지방의 관객증가율이 더욱 가파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2002년을 기점으로 다양성영화의 환경이 공공적 지원에 힘입어 상승기조에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표 1> 예술영화관(아트플러스) 관객 증감률

(단위 : 명)

지역	상영관	2005년	2006년	2007년	2005 ~ 2006년 증감율(%)	2006 ~ 2007년 증감율(%)
서울	A	36,039	39,263	52,057	108	132
	B	11,778	21,085	18,491	179	88
	C	5,618	8,673	5,202	154	60
지방	D	2,055	6,972	9,748	339	140
	E	2,535	6,962	8,535	274	122
	F	21,998	26,967	26,904	123	99
합계		80,023	109,922	121,387	143	110

주: 2007년 관객수는 4~8월 관객수 기준 (2007년 사업 시작 시점: 4월)

그러나 영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영국, 일본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다양성영화 환경은 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영화산업 내 다양성영화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토대로 영화산업의 선진화 정도와 영화문화 향유 수준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은 타국에 비해 적게는 48%, 많게는 8%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 2> 각 국별 영화산업내 다양성영화부문 비율 비교

(단위 : %)

구분	다양성영화전용관 비율	다양성영화 관객 비율	다양성영화 상영편수 비율
한국	1.1	2.9	44.6
일본	(미니씨어터 측정 불가)	5.6	79.6
영국	6	4.6	37.5
프랑스	16.3	34.3	59.8

이처럼 프랑스, 영국, 일본의 다양성영화부문이 영화산업의 중요한 부문으로 발전될 수 있는 동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컸다. 프랑스와 영국과 같이 영화진흥을 위한 정부산하 공공기관<sup>3)</sup>이 있는 곳은 지자체와 더불어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성영화부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다양성영화의 영역이 협소하였을 때는 중앙진흥기관이 지원에 대한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일반관객들의 요구가 더 높아지게 된 현재는 동반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 다양성영화 진흥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시의 역할

이미 서울시는 서울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로케이션지원과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넥스트플러스여름영화축제’를 개최하여 서울시민들이 다양성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관람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혹은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사업을 펼침으로써 다양성영화부문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 않다.

여기서 잠깐 영화진흥위원회의 다양성영화 활성화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제작지원영역과 상영·유통지원영역, 그리고 공공영상문화조성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영화제작지원, 예술영화제작지원, HD영화제작지원 등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다양성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제작지원과 다양성영화전문투자조합출자를 통한 제작환경여건조성이 제작진흥의 영역이며, 개별 작품의 개봉에 필요한 마케팅비용을 지원하는 배급지원과 다양성영화전용관을 지원하여 상영환경인프라 조성, DVD제작배포지원이 상영·유통지원영역이다. 공공영상문화조성영역은 시네마테크사업<sup>4)</sup>, 독립영화전용관운영사업<sup>5)</sup>, 영상미디어센터운영사업<sup>6)</sup>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에는 총 14개의 예술영화전용관과 1개의 시네마테크전용관, 1개의 독립영화전용관,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 이들 공간은 영화산업의 중요한 토대역할을 할 뿐 만이

- 3) 프랑스는 CNC(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에서, 영국은 UKFC(UK Film Council)에서 영화산업진흥을 주관한다.
- 4) 시네마테크는 영화를 문화유산으로 인식하여 상영과 교육을 통해 영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관객활동으로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14개의 단체가 (사)한국시네마테크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서울아트시네마’, ‘시네마테크부산’, ‘대전아트시네마’ 등 서울, 부산, 대전에 전용관이 있다.
- 5) 독립영화전용관은 현 시기 제작되는 장편독립영화의 개봉과 단편, 실험영화 등 개봉을 통해 접하기 어려운 독립영화의 일상적 상영을 위한 상영관으로 영화진흥위원회는 2007년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를 개관하였다.
- 6) 미디어센터는 영상제작 교육과 영상물 제작을 위한 각종 장비들을 저렴하게 대여하여 누구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으로 영화진흥위원회는 광화문에 ‘영상미디어센터-미디어트’를 운영하고 있다.

〈표 3〉 서울시 내 다양성영화 상영공간

•예술전용영화관	시네큐브 2개관, 필름포럼 2개관, 하이퍼텍 나다 1개관, 미로스페이스 1개관, 스폰지하우스 3개관, 명동 CQN 2개관(일본영화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1개관, CGV 인디영화관 2개관, 서울애니시네마 1개관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 1개관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1개관
•영상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 미디어액트(다양성영화 상영 및 제작도 시행)

라 서울시민의 일상적 문화공간이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는 일반관객들이 영상에 대한 창작과 관람, 교육, 토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공적 영역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시네마테크전용관,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 하는 ‘다양성영화 복합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이다. 가칭 ‘넥스트플러스시네마콤플렉스’인 다양성영화복합공간은 다양성영화 전체에 대한 메카의 개념으로 다양성영화에 대한 교육, 제작, 상영 등의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화 소통의 공간으로서 다양성영화 수요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 공간이 건립 되면 서울은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영화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갖추게 될 것이다. 서울시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다양성영화 진흥을 위해 함께 하길 바란다. **SDI**